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Wife Abuse Experiences of Women Who Killed their Husbands*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 영 희
충북대학교 가정학과
석 사 변 수 정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Yeonghe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s : Byoun, Soojung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use experience from husbands among women who killed their husbands and the husbands' characteristics, and the women's own characteristics consisting of the emotional climate in the family of origi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wife abuse experience: non-abuse group and abuse group. Second, in terms of the husbands' characteristics which consisted of economic capacity and alcohol proble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between non-abuse and abuse groups. Third, the women in the abuse group, compared to those in the non-abuse group, had a tendency to perceive that they received maltreatment, physical punishment, and indifference and rejection from their family of origin.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on-abuse and abuse groups in emotional support the women received from their family. Fourth, as for the women's characteristics consisting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he women of both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while the women in the abuse group perceived that they received a level of social support relatively lower than those in the non-abuse group.

주제어(Key Words): 남편살해 여성(Women who killed their husbands), 아내학대(Wife abuse), 아내학대경험(Wife Abuse Experiences)

Corresponding author: Byoun, Soojung, Chungbuk Ns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Home Economics, Department of Child Welfare, 12 Gaeshin-dong, Heungduk-gu, Cheongju-shi, Chungbuk, Korea 361-763 Tel: 82-43-261-2793 Fax: 82-43-260-2793 E-mail: nice914@hanmail.net

* 본 연구는 학술진흥원의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에 들어 성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배우자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 온 중산층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Adler, 2002). 미국에서 이루어진 남편을 살해하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Brown, 1987; Leonard, 2002; Rait & Zeedyk 2000; Robertson, 1998), 이 여성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대부분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심한 학대와 폭력에 시달려 온 '학대받는 여성들(battered women)' 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에 의한 남편살인은 희생자가 된 남편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정당방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입증되고 있다(Brown, 1987; Campbell, 1995; Mann, 1992).

한국의 경우 역시 남성 살인범과 비교해서 여성 살인범의 수가 극히 적긴 하지만, 여성에 의한 살인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에 수감된 531명의 여성 재소자 가운데 133명이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이었다는 사실(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은 이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남편 살해는 결혼관계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20년 이상 익히고 자라온 자신의 원가족 특성과 상대방이 자라온 원가족의 특성이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갈등을 내포하게 된다(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0). 하지만 부부간에 발생되는 갈등이 극에 이르러 폭력을 취하게 되면 가족관계에서 가해자-피해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된다(Steinmetz, 1977). 또한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한 상황이 되면 살인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남편살해 여성의 연구에 가정불화의 원인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198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에 대한 접근에 관심을 모으게 됨으로써 아내학대를 하는 남편의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 왔다(김경신, 2002; 김현수, 조선미, 윤응장, 이영미, 송은하 , 2000). 선행연구는 경제적 요인이 아내학대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여성의 전화, 1992). 즉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의 30.8%가 월평균 수입이 최하층에 속하는 계층에 속해있었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아내를 학대하는 비율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음주로써(공미혜, 1997), 이로 인해 가정 내 갈등상황이 조장되거나 상승되어 폭력으로 변화하거나, 낮은 자존감이나 사회적 부적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취하게 되면 가정 내 아내학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가족 전체의 질서를 무너트릴 뿐 아니라 어린 시절 가정 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는 등 폭력에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기에 신체적 문제, 심리적 · 정서적 문제, 사회 부적응 등을 나타낸다(김정란, 2002; Stith, Rosen, Middleton, Busch, Lundeberg & Carlton, 2000). 특히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할 때 기제가 되고 있어(Sabatelli & Bartle-Haring, 2003) 학대받는 여성들이 자라온 원가족의 정서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내학대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학대를 받는 여성들이 신체적인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 · 정서적 손상 역시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광일, 1988; Haj-Yahia, 2000).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자아존중감 저하와 우울의 심화인데, 학대가 심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우울이 심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인 동시에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김애경, 2002). 권진숙(1995)의 연구에서는 학대받는 여성의 개인심리적 피해특성으로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결여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망의 결함을 들고 있다.

학대관계의 종식으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을 보면, 살해에 이르기 까지 여성들은 대부분 장기간의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에도 남편의 폭행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나 공격이 잠시 중단된 상황, 또는 폭력행사 후 잠든 상태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정현미, 2001). 박순진(2002)의 연구에서도 남편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남편의 학대가 있어왔고 조사된 사건 중 대다수가 남편의 학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의한 남편살해가 아내학대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편을 살해하는 여성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남편살해를 학대와 관련하여 연구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외연구에서도 남편살해를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로 보는 해석과(Mann, 1992) 그렇지 않은 결과(Chimbos, 1978)가 서로 혼재하고 있으며, 학대의 요인을 밝히는 연구에서는 남편살해 여성 중에 학대를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연구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살해 여성 중에 학대받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특성은 알려져 있지 않아 학대와 관련된 요인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의 상황은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남편살해 여성이 일반 살인범으로 판결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편살해 여성에 대한 학대 유무를 판결에 따라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편살인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들 모두가 아내학대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

에도 무리가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남편살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학대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학대 유무를 판단하고 살인의 이유가 진정으로 아내학대인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극심한 아내학대의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어온 학대 받은 여성들과 관련된 요인들이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여성에게서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받은 남편살해 여성의 특성을 보다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편살해 여성을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학대를 받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내학대 경험 유무에 따라 남편의 특성,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아 아내학대 경험으로 인한 여성의 남편 살인과 학대경험이 없는 여성의 남편살인에 관련된 요인들의 차이를 밝혀내어 학대받은 남편살해 여성의 특성을 밝히고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나아가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편살해 여성을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집단화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남편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2-1.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2-2.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남편의 알코올 문제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여성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3-1.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여성의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에는 차이가 있는가?

3-2.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에는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의 남편살해

최근 범죄의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발생양상을 보이던 살인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600건에서 800건이던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연간 900건을 넘어 거의 1,000건에 가깝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살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범죄분석, 2002).

이러한 범죄발생의 증가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살인범죄의 경우 가정문제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에 의한 살인 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여성에 의한 살인의 피해자 대부분이 가족구성원, 특히 남편이라는 점이다(Leonard, 2002). 살인범죄를 남녀의 비율로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단순한 면식관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가 49.4%, 가족 · 친인척을 살해한 경우가 23.1%이며 처음 보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16.3%를 차지한다.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족 · 친인척인 경우가 59.8%, 단순한 면식관계가 21.8%, 애인관계 14.9%이며, 처음 보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3.4%에 지나지 않는다. 즉 여성범죄자의 경우 남성범죄자보다 가족 ·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비율이 훨씬 높으며, 그 중 상당수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한인섭, 1996).

한국의 경우 살인 죄목으로 수감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편살해 여성은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여자교도소에 살인범으로 수감중인 여성가운데 53.4%를 차지하고 있어(김영희 외 2인. 2004) 여성의 남편살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남편살해 여성이 경험한 아내학대와 관련된 요인

1) 아내학대

폭력적 아내학대 행위는 가정폭력의 중요한 한 범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1992)의 자료에 의하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아내가 조사대상자 7,500명 중 61.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남편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경우도 조사대상자 644명 중 10.4%로 나타났다(김익기, 심영희, 1992). 아내학대의 심각성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가정폭력 사범으로 신고 된 건수의 84.5%가 남편의 아내학대로서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아내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중앙일보, 2002).

최근의 아내구타에 대한 연구는(Johnson, 1995) 부부간의 폭력을 '통상적인 부부폭력'(common couple violence)과 '가부장적 테러리즘'(patriarchal terrorism)으로 대별하며, 후자에 체계적인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성적으로 아내를 종속시키는 통제양식을 포함시키고 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장한 남성들은 자신의 권위가 아내나 자녀에 의해서 손상되는 상황을 맞거나 또는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권위/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된 폭력(주로 아내구타)은 가부장적 문화가 남성에게 때릴 힘과 때릴 권리를 동시에 부여해 줌으로써 형성된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적인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사회 전체가 남편에게 허락해준 범죄로서 유일하게 '벌 받지 않는' 범죄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용하는 폭력으로서의 아내구타는 가부장적 테러리즘(patriarchal terrorism)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가부장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체계 내의 권력과 통제유형을 제시한 Pence와 Paymer(1993)는 'Power and control wheel' 모델을 사용하여 아내학대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남성이 여성에게 사용하는 갈등책략을 위협, 정서적 학대, 고립, 최소화 · 부정 및 탓하기, 자녀이용, 남성특권이용, 경제적 학대, 그리고 강요와 협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내학대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김광일, 1988; 김익기 외 1인, 1992) 아내구타를 양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하였으며, 페미니즘적 시각이 점차 강화되어 최근에는 쉼터 등에 있는 피해여성에 대한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김인숙, 김혜선, 신은주, 1997). 또한 최근에는 가부장적 테러리즘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아내구타 현상을 복합적으로 보려는 연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김인숙 외 2인. 1997; 심영희, 1996).

남편의 여성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데이트와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에 관해 많은 임상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남편에 의해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심리적 학대는 최근에서야 체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Street & Arias, 2001). 그러나 불행히도 파트너로부터 심각한 심리적 학대를 당하지 않고 신체적 학대만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Marshall, 1996). 또한 심리적 학대는 불안(Ruseel, Lipov, Phillips, & White, 1989), 사회적 철회(Star, Clark, Goeta, & O'Malia, 1979), 자살시도(Gelles & Harrop, 1989)를 포함하여 여러 영역에 걸쳐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심리적 학대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구타당하는 여성들'이 신체적 학대보다 심리적 학대를 더 해로운 자극으로 지각했다는 결과가 있다(Street & Arias, 2001). Hamby와 Sugarman(1999)도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Straus와 Sweet(1992)는 심리적 · 언어적 공격의 영향은 신체적 폭력만큼 해롭다고 함으로써 심리적 학대와 함께 언어적 학대의 심각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Hoffman(1984)은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Pan과 Neidig 및 O'Leary(1994)는 학대적이고 위협적인 언어와 신체적 폭력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언어적 폭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아내학대의 개념은 폭력이나 구타 등의 용어와 별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은 신체 그리고 물리적 공격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구타는 심한 신체적 공격행위를 나타내는 한편, 학대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및 비신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변화순, 원영애, 최은영, 1993). 따라서 아내학대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 행위 뿐 아니라 비신체적 · 심리적 학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대여성의 연구에 신체적 폭력 이전에 나타나는 심리적 폭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행했던 학대에 대해 'Power and control wheel' 모델에서 갈등 책략으로 다루었던 변인을 좀 더 세분화 하여 언어적 학대, 지배 · 간섭, 질투 · 의심, 경제적 학대, 사회적 고립, 정서적 학대와 협박 · 위협, 신체적 학대를 사용하여 아내학대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학대하는 남편의 특성

계층이나 실업, 그리고 수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소들 즉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내에 대한 학대적 폭력행위와 관계가 있고, 아내에 대한 폭력에 잠재적으로 공헌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내 학대행위는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계층 부부들 사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데, 특히 미숙련 노동계층의 부부사이에서 발생빈도가 높다(Cleveland Refuge and Aid for Women and Children, 1984).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연구들도 남편의 경제적 수준이나 경제적 지위가 아내에 대한 폭력행위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조사에 따르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일어난 가구는 하층에 22.0%, 중층에 16.4%, 상층에 8.8%인 것으로 나타나, 하층으로 갈수록 아내폭력이 일어나는 가구의 분포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어 경제적 지위와 남편의 아내폭력행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결과(한국여성의 전화, 1992)에서도 경제적 요소(수입)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학대행위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대받는 아내(표본)의 남편 월평균 수입이 최하층에 속하는 계층이 30.8% 로서 가장 높은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그 분포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아내학대는 전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파악되며, 상담소나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변화순 외 2인. 1993). 이는 낮은 계층의 남편이 아내학대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남편의 아내학대의 빈도가 낮아지고,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내학대의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정옥(1991)의 조사에 따르면 학대적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직업, 가족구성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남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내구타는 남편의 교육수준이나 직업과는 상관이 없고, 하류층 사람들이 중상류층 사람들보다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는 근거도 없이 어느 집단에서나 고르게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광일, 1988; Gelles, 1993a). 오히려 구타하는 남편의 성장배경, 성격, 음주습관 등이 구타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England, 1993; Gelles, 1993b).

알코올은 폭력과의 관련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변인 중 하나로, 남편의 지나친 음주는 아내학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Kantor & Straus, 1987). 아내구타와 음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김광일(1988)의 연구에서는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50~90%가 폭음자이거나 알코올 중독자이며 도박을 즐기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다른 보고에서도 폭력남편은 외도문제(48.1%), 도박문제(40.4%), 음주문제(71.2%)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1995; 김익기 외 1인. 1992; 허남순, 1993).

과도한 음주는 부부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아내학대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공미혜(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음주는 가정 내 갈등상황을 조장하거나 상승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자들의 남편들은 술을 마시면 정신이 나가거나, 화가 나서 아내를 비난할 구실을 찾아 구타상황을 만들고, 아내를 구타할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내학대에 대한 알코올과 약물이론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이 인간에게 내재하는 폭력적 성향을 방출시키는 탈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즉 이러한 물질들이 초자아의 억제기능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생득적, 혹은 학습된 폭력적 성향을 발산하도록 만든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경우 학대행위를 하고 싶을 때 구실을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비의도적인 음주를 한 경우하고 자신의 학대행위의 원인을 음주 탓으로 돌려 그것을 합리화함으로써 일탈에 대한 부인을 하게 되며, 아내도 남편의 학대가 술 때문이라고 귀인시킴으로써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함은 물론 악순환적인 학대주기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Gelles, 1998.)

심재근(1984)의 연구에서 나타난 아내구타의 이유는 '술만 마시면 때린다' '이유 없이 때린다'가 가장 많았고, 특히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살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 등(2004)의 심층연구에서 술만 마시면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과 더불어, 다양한 학대들 속에서 경제적 학대 까지도 심했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의 특성 중 경제적 능력과 알코올 문제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남편살해 여성의 남편들의 경제적 능력과 알코올 문제가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여성의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아내학대

많은 연구들이 원가족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개인의 생애발달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는 등 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체적 문제, 심리 · 정서적 문제, 사회 부적응 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폭력을 일종의 행동방식으로 유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김정란, 2002; Hotaling & Sugarman, 1986; Stith et al., 2000). 특히 성장기에 경험하는 가정폭력으로 여성은 폭력에 대한 무기력 행동을 학습하게 되고, 남편의 학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아내학대 피해를 더욱 많이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Carlson, 1984).

또한 가정폭력에 관한 Shainess(1979)의 연구에서 학대받는 아내는 아동기의 학대적인 사람과의 경험으로 인해 성인기의 역기능적인 신념과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아내들은 자신들이 학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폭력적인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학대적인 행위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Carlson(1984)은 여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폭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어머니의 무능력을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아내학대 피해자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묘사되는 무기력 행동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학습된 무력감'은 폭력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권진숙, 1995). 또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

란 아이들은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배려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Browne, 1987).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내폭력을 당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Tjaden & Thoennes, 2000).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애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강한 거부나 냉담한 반응은 아동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 행동을 하게 만든다(정계숙, 이은하, 2003).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고 생각하거나 애정을 표시하면 아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식적으로 사랑을 억제하고 심한 체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김경희, 2002). 대체로 이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자라난 아동은 좌절을 경험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어떤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이 어렵고 의존적이다. 또한 정서가 불안하고 복종적이므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신혜영, 1999; 조수환, 2003). Dekovic과 Janssens(1992)는 부모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는 친구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은 덜 하고, 친구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결과는(오성심, 이종승, 1982)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의 중요성을 알게 해 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후에 여성이 받는 아내학대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비추어 신체적 학대 이외에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온 부당대우, 신체적 체벌, 냉담 · 거부, 정서적 지지와 아내학대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4)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과 아내학대

남편의 구타 빈도가 많을수록, 구타정도가 심할수록, 구타기간이 길수록 아내의 자아존중감은 낮고, 자아기능도 많은 손상을 입는다고 하였다. 남편의 학대를 받아 온 아내들의 정신적 · 심리적 상황의 특징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무기력, 부정적 자아상, 절망상태 등이었다(박재신, 1992; Martin, 1981). 이러한 심리적 · 정신적 노예화 과정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학대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매우 낮은 자존감은 매맞는 아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들은 자기개념을 확립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구타당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적개심과 분노를 혼자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김광일, 1988). 또한 신은주(1995)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아내학대의 심리적 영향으로 여성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소외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사고력과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킬 정도의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학대의 빈도, 심각성 그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높은 상관을 나타내며, 여성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한번 형성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박미은, 1997).

아내학대를 받은 여성들의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무기력, 수치심 등은 여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들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점차 사회로부터 단절되게 만들기도 한다(변화순 외 2인, 1993). 권진숙(1995)의 연구에서도 학대받는 여성의 개인심리학적 피해특성으로 낮은 자존감 및 자신감의 결여, 만성적 우울증과 무기력감, 죄의식과 자책감, 신체화병과 더불어 폭력배경과 사회적 지지망의 결함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인 동시에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부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이 가속화 되어왔다(김애경, 2002).

Lackey와 Williams(1995)는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아내폭력을 중단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서 사회적 유대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성인기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과의 사회적 유대감이 클수록 폭력의 연결고리가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Pellham(1991)은 자존감이 낮더라도 주변에 자신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고민을 나누고, 의지가 되며, 때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제공될 때 보다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효율적으로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Silver와 Wortman(1980)은 사회적 지지가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학대라는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학대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기간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여성들이 위기상황에서 남편을 살해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여성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나 가정불화 해결을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남편살해 여성의 40%가 아무에게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완전히 결여된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범죄 범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로 학대나 불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지지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정황이 살인 범죄와 관련이 높다(김영희 외 2인, 2004)는 것으로 아내학대의 종결과 동시에 남편살해자라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여성들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대받는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아내학대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남편살해

가정폭력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친족간의 살인이다. 이러한 살인사건의 경우 여성의 가해행동은 남성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남성의 경우에 비하여 여성은 상대방의 폭력 또는 위협 상황이 가해행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여성의 가해행동은 남편의 극심한 폭력에 대한 아내의 방어행동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남편을 살해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전,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심한 학대에 시달려온 여성들이라는 것에 선행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한인섭, 1996; Bowker, 1993; Browne, 1987; Gagne, 1998; Schneider, 2000).

김경애(2001)의 사례연구에 의하면,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다수가 경험한 아내학대의 정도는 상해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자녀와 자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편의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 머무르지만 한편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 도피, 이혼 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저항하였다. 이러한 대응이나 저항으로는 남편의 학대를 교정할 수 없었고 또 벗어날 수 없어 참고 머무르지만 남편으로부터 받는 학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끼거나 학대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절망감에서 순간적으로 극한적 살인을 행한다고 한다. 또는 남편이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나 자녀들의 생명이 위협받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편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최근 살인죄로 수감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김영희 외 2인(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살인 죄목으로 구분된 249명 중 53.4%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이며, 그들 중 44.5%의 범행동기가 피학대로 나타났다.

외국의 선행연구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 여성에 의해 일어나는 살해는 가해자가 거꾸로 희생자가 되는 사건으로, 희생자가 된 남편이 먼저 폭력적 행동을 저지른 사건 현장에서 살해한 경우가 많다(Campbell, 1995; Jurik & Winn, 1990; Mann, 1992). 또한 Browne(1987)은 남편을 살해했거나 심각한 해를 입힌 학대받은 여성과 남편에게 해를 주지 않은 학대받은 여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이 더 심한 폭력을 자주 겪어왔고 심한 상처를 입어왔으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더 많이 받아 온 것을 지적했다.

기존의 연구나 이론에서는 남성의 폭력을 종식시키는 부정적인 대응으로서 살인에 대한 접근은 실태조사나 소수의 사례로 이루어진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내학대에 대한 대응에 관한 기존 연구는 부정적 반응의 극단적인 형태인 남편살해에 관해서는 접근이 어려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여자교소도인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살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남편살해를 아내학대를 종식하는 대응 방안으로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종래의 연구에서 벗어나 아내학대를 받은 남편살해 여성 집단과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남편살해 여성 집단의 차이를 남편의 특성, 남편살해 여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형사기록지를 검토 한 후 남편살해범만을 분류하여 대상으로 하였다. 남편살해에는 사실혼인 동거 관계에서 남성을 살해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설문방법은 직접설문지 방식이었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글을 알지 못하여 직접 설문지를 완성하기 어려운 재소자의 경우는 지도교수와 본 연구자 및 대학원생이 인터뷰 방식으로 설문을 이해시키고 면담기입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5일, 6일, 9일로 청주여자교도소측과 사전에 시간을 조정한 뒤, 지도교수와 본 연구자와 대학원생이 청주여자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5일, 6일에는 각각 2회로 나누어 20명씩 1시간 20분에 걸쳐 하루에 2시간 40분씩 설문조사에 임했으며, 9일에는 남편 살해범으로 수감 중인 재소자 중에서 외부근로 중인 재소자 35명이 모인가운데 1회, 1시간 30분 동안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다. 총 수집된 자료 115부 중 남편살해 여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3명의 재소자와 응답 도중 응답을 포기한 15명의 재소자의 응답지 1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는 Ross, Campbell과 Clayer(1982)가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EMBU)를 영어로 번안한 것을 한국어로 번안 ·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

〈표 1〉 각 변인에 따른 측정도구

변인		문항수	Cronbach α 계수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나타내는 특성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부당대우	4	.85	원가족에서 부모에게 형제, 자매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음
	신체적 체벌	6	.90	원가족에서 부모의 신체적 체벌이 많았음
	냉담 · 거부	8	.88	원가족에서 부모의 냉담 · 거부적인 반응이 많았음
	정서적 지지	4	.80	원가족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았음
자아존중감		7	.71	자아존중감이 높았음
사회적 지지		10	.83	주변에 사회적 지지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음
아내학대	언어적 학대	5	.88	남편의 언어적 학대가 많았음
	신체적 학대	5	.90	남편의 신체적 학대가 많았음
	지배 · 간섭	10	.88	남편의 지배 · 간섭이 많았음
	질투 · 의심	3	.81	남편의 질투 · 의심이 많았음
	경제적 학대	2	.70	남편의 경제적 학대가 많았음
	사회적 고립	10	.92	남편이 사회적으로 고립을 많이 시켰음
	정서적 학대	13	.89	남편의 정서적 학대가 많았음
	협박 · 위협	7	.83	남편의 협박 · 위협이 많았음

도는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본 연구에 접합하다고 판단되는 22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EMBU는 부모의 부당대우, 신체적 체벌, 냉담 · 거부, 정서적 지지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 거의 그렇지 않았다(2점), 거의 그랬다(3점), 항상 그랬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신뢰도가 부족한 3문항을 제외한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는 4점 Likert 척도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김정희(1992)가 제작한 대인관계 질문지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주변의 지지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주위에 질문의 내용에 대한 지지를 받을 곳이 없었으면 없었다(1점), 지지받을 곳이 있었으면 있었다(2점)에 응답하게 구성되어 있다.

4) 남편의 아내학대

남편의 아내학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olman(1989)이 개발한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y (PMWI)를 번안 · 수정하여 언어적 학대, 지배 · 간섭, 질투 · 의심, 경제적 학대, 사회적 고립, 정서적 학대와 협박 · 위협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Hudson(1997)의 Partner Abuse Scale : Physical(PASPH)을 번안하여 신체적 학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문항 5개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점수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 거의 그렇지 않았다(2점), 거의 그랬다(3점), 항상 그랬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설문지는 모두 97부였으며,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남편살해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다. 남편살해 여성을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남편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 간 여성의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세 미만	2(2.1)	사건 당시 나이	30세 미만	11(12.0)
	30대 초반	7(7.2)		30대 초반	20(21.7)
	30대 후반	17(17.5)		30대 후반	22(23.9)
	40대 초반	20(20.6)		40대 초반	19(20.7)
	40대 후반	29(29.9)		40대 후반	11(12.0)
	50세 이상	22(22.7)		50세 이상	9(9.8)
	계	97(100.0)		계	92(100.0)
학력	초졸이하	31(32.3)	결혼 상태	동거	23(24.0)
	중졸	23(24.0)		초혼	66(68.8)
	고졸	33(34.4)		재혼	4(4.2)
	대학 졸업	9(9.2)		이혼	3(3.1)
	계	96(100.0)		계	96(100.0)
어린시절 부모	부모	72(74.2)	결혼 후 경제적 수준	상	2(2.1)
	어머니	16(16.5)		중	67(69.1)
	아버지	5(5.2)		하	28(28.9)
	부모 모두 없었음	4(4.1)		계	97(100.0)
	계	97(100.0)	결혼 후 남편의 폭력	유	82(84.5)
성장기 가정폭력 목격	유	28(29.5)		무	15(15.5)
	무	67(70.5)			
	계	95(100.0)		계	97(100.0)

2. 집단 구분

1) 남편살해 여성의 학대경험 측정

본 연구에서 남편살해 여성들이 경험한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언어적 학대, 지배 · 간섭, 질투 · 의심, 경제적 학대, 사회적 고립, 정서적 학대, 협박 · 위협과 신체적 학대의 경험을 묻는 55개의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아내학대의 방법이 다양하고, 남편으로부터의 심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이 비교적 다른 종류의 학대는 적게 경험했거나 또는 언어적 학대는 경험하지 않았으나 다른 종류의 학대는 심하게 경험하는 등과 같은 학대경험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8가지 종류의 학대에 대한 피험자들의 응답 패턴을 근거로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집단을 나누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 과정에서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Eucldean Distance)와 Ward의 방법을 이용하여, 8가지 종류의 학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여성들이 동일한 집단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덴드로그램(Dendrogram)과 fusion coefficient 값에서의 변화의 크기를 바탕으로 2개의 군집이 산출되었다(Cochran & Bromley, 2003).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군집은 8가지 종류의 아내학대 모두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남편으로부터의 아내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군집의 8가지 종류의 학대에서의 1점(전혀 그렇지 않았다)과 2점(거의 그렇지 않았다) 사이의 평균은 이 군집에 속한 여성들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었거나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대를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번째 군집은, 첫 번째 군집과 비교하여 8가지 종류의 학대 모두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8가지 종류의 아내학대의 평균값들이 3점(거의 그랬다)에 가깝거나 3점 이상이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이 두 번째 군집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군집은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 두 번째 군집은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 3〉 군집에 따른 프로파일(profile)

		아내학대 양상							
		언어적 학대	지배 · 간섭	질투 · 의심	경제적 학대	사회적 고립	정서적 학대	협박 · 위협	신체적 학대
군집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N = 44)	1.70(.59)	1.62(.50)	1.61(.63)	1.41(.53)	1.51(.51)	1.44 (.43)	1.28(.30)	1.49(.51)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N = 53)	3.03(.64)	2.76(.50)	2.81(.79)	2.87(.84)	2.63 (.67)	2.47(.43)	2.28(.67)	3.06(.62)

군집분석 결과, 44명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은 53명으로 분류되었다.

3.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남편특성

1)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남편의 경제적 능력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과 같다.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은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올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가 39.2%, 없는 경우가 6.2%로 나타난 반면,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가 17.5%, 없는 경우가 37.1%로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내학대는 하류층이나 중상류층에 구분없이 어느 집단에서나 발생한다는 연구(Gelles, 1993a)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내의 남편의 월평균 수입이 최하층에 속하는 계층이 가장 높은 분포비율을 보이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그 분포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수입이 아내에 대한 학대행위와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한국여성의 전화, 1992)와 맥을 같이 한다.

2)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남편의 알코올 문제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남편의 알코올 문제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은 남편의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가 13.4%, 없는 경우가 32.0%인 반면,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은 남편의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가 48.5%, 없는 경우가 6.2%로 남편의 알코올 문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내구타와 음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김광일(1988)의 연구에서의 아내구타자의 50-90%가 폭음자이거나 알코올 중독자이며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구타남편의 성장배경, 성격, 음주습관 등이 구타와 관계가 있다(England, 1933; Gelles, 1993b)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구타자의 지나친 음주는 아내학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Kantor & Straus, 1987)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4.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여성특성

1)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의 차이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은 부모의 부당대우에 차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나($t=3.16$, $p<.01$), 남편에게 학대받은 집단은 학대받지 않은 집단의 여성들보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형제 · 자매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에게 학대받지 않은 집단과 학대받은 집단은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중 신체적 체벌에서 차이를 보였다($t=3.29$, $p<.01$). 즉, 남편에게 학대받은 집단이 학대받지 않은 집단보다 원가족에서 신체적 체벌을 많이 경험한 것을 보여주었다.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간에는 원가족의

〈표 4〉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남편의 경제적 능력

(n=97)

구분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	빈도(%)	χ^2
남편의 경제적 능력	유	38(39.2)	17(17.5)	55(56.7)	28.86***
	무	6(6.2)	36(37.1)	42(43.3)	
전체		44(45.4)	53(54.6)	97(100.0)	

***$p<.001$.

〈표 5〉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남편의 알코올 문제

(n=97)

구분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	빈도(%)	χ^2
남편의 알코올 문제	유	13(13.4)	47(48.5)	37(38.1)	35.63***
	무	31(32.0)	6(6.2)	60(61.9)	
전체		44(45.4)	53(54.6)	97(100.0)	

***$p<.001$.

냉담 · 거부적인 분위기에서도 차이를 보여(t=3.21, p<.01), 학대받은 집단은 학대받지 않은 집단보다 냉담 · 거부적인 반응을 많이 받으며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화된 체벌을 폭력으로 보았을 때(Straus, 1980), 여성의 경우 성장기 폭력노출 경험은 폭력에 대한 무기력 행동을 학습하게 되어, 이후 남편의 학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아내학대 피해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Stith 등(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중 정서적 지지는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중 긍정적인 분위기는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2)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남편살해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살펴 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중 사회적 지지만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학대를 받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표 7〉.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학대를 받기 쉽다는 Sigall과 Gould(1977)의 연구와, 남편의 학대를 받아 온 여성의 특징이 낮은 자아존중감이라는 연구들(박재신, 1992; Martin, 1981)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 간에 사회적 지지가 차이를 보여(t=-2.01, p<.05), 남편살해 여성 중 남편에게 학대를 받은 집단은 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받는 아내들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부족하고 사회나 주위로부터의 도움이 부족하다는 Finn(198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편살해 여성을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학대를 받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내학대 경험 유무에 따라 남편의 특성,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아 아내학대 경험으로 인한 여성의 남편 살인과 학대경험이 없는 여성의 남편살인에 관련된 요인들의 차이를 밝혀내어 학대받은 남편살해 여성의 특성을 밝히고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나아가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남편살해 여성은 아내학대 경험의 수준에 따라 97명 중 53명은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으로, 나머지 44명은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으로 나뉘었다. 남편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은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남편이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경제력이 없던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은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남편이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살해 여성의

〈표 6〉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부당대우		신체적 체벌		냉담 · 거부		정서적 지지	
	N	M(SD)	N	M(SD)	N	M(SD)	N	M(SD)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	43	1.27(.48)	43	1.24(.29)	43	1.24(.32)	44	2.70(.89)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	51	1.71(.70)	52	1.58(.68)	52	1.56(.61)	52	2.61(.78)
t	3.61**		3.29**		3.21**		-.55	

**p<.01.

〈표 7〉 남편살해 여성의 아내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N	M(SD)	N	M(SD)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	44	2.85(.44)	44	1.56(.31)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	53	2.75(.49)	53	1.44(.25)
t	-1.05		-2.01*	

*p<.05.

원가족의 분위기를 살펴 본 결과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원가족에서 부당대우, 신체적 체벌, 냉담 · 거부적인 반응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중 정서적 지지는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심리적 특성으로 살펴 본 자아존중감은 남편의 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사회적 특성으로 살펴 본 사회적 지지는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아내학대를 받은 남편살해 여성이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남편살해 여성보다 사회적 지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편살해 여성을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여성과 받은 여성으로 나누어 본 결과 여성의 남편살해가 남편의 학대행동에 대한 자기방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선행연구들(한인섭; 1996, Bowker, 1993; Gagne, 1998; Schneider, 2000)과는 달리 전체 남편살해 여성 중 55%만이 아내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살해의 이유가 전부 남편의 학대행동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남편살해 여성 중 학대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연구이거나 소수의 남편살해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수의 남편살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학대로 인한 남편살해에 대한 연구는 물론, 남편살해의 원인이 아내학대가 아닌 경우에는 부부가 가진 문제를 살인사건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연구와 더불어 상담소나 사회적 연결망의 구성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해 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의 경험여부에 따라 남편의 경제적 능력과 알코올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아내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경우가 더 많았고,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 문제를 폭력 후 변명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알코올과 폭력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아내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알아본 김경신(2002)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면담대상자 30명의 2/3이상인 21명(70%)이 알콜중독 등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여, 아내학대 행위자들의 음주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폭력과 상호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살해된 남편들 중 아내학대를 한 남편들이 그렇지 않은 남편들보다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는 알코올 문제가 아내학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선행연구(김은주, 2004)에서 남편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즉 남편의 특성으로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을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나 정신질환 또는 유난히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등과 함께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아내학대에 함께 작용함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살해된 남편들이 가지고 있던 폭력성 등 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알코올 문제를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인 경제적 능력에 있어 선행연구(Gelles, 1993a)는 아내학대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어느 계층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학대를 한 남편과 그렇지 않은 남편사이에 경제적 지위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점은 아내학대를 받은 여성들 중에 어떤 여성들은 살해를 일으키고, 어떤 여성은 살해를 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남편살해를 한 여성들 중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남편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남편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이는 남편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나 정신질환 여부 등 남편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내학대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학대를 가하는 남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학대와 관련된 알코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본 연구는 명확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원가족에서 부당대우, 신체적 체벌, 냉담 · 거부적인 반응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시절 원가족에서 폭력과 거부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그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학습되어(Carlson, 1984)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학대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대로 학대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학대에 순응하는 것을 자신의 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여성들은 반복되는 학대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어 살해에 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중 정서적 지지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원가족의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 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적 분위기가 쉽게 학습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에게 인간이 자라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 됨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넷째, 남편살해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살펴 본 자아존중감은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이 매맞는 아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김광일, 1988)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들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만큼 남편살해 여성 중 학대받은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 자아존중감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현재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받은 직후의 상황에 있지 않고, 학대를 받은 후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학대로 인한 결과로써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가치가 낮다고 인지하게 되거나(Dutton, 1992), 아내학대 피해여성 집단이 그렇지 않은 여성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Launius & Lindquist, 1998; Sampselle, 1992)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여성들이 응답한 학대의 질문문항은 과거 회상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도가 낮아져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편살해 여성은 교도소라는 곳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아내학대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죄의식(김영희 외 2인. 2004)을 가지고 있어 두 집단이 자아존중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지지는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받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학대의 양상으로 볼 수 있는 남편의 통제로 인해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어 감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영희 등(2004)의 연구에서 폭력, 음주, 외도 등과 함께 의처증이 남편살해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 가졌던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나 이 여성들이 남편의 극심한 통제에 시달려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보니 주변의 지지체계가 형성되거나 유지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나 방법을 알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살인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처가 필요하며, 여성단체의 보다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폭력예방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받은 여성들보다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는 결과를 보인 아내학대를 받지 않은 남편살해 여성들을 일반여성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이 일반여성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살해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아내학대를 받고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그 수준이 일반여성들과는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에게 중요한 지지체계를 확인하고,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남편살해 여성 중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의 여성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내학대보다 심한 학대를 받은 여성들이었다. 극심한 학대를 받은 여성들에 대한 접근은 시도했으나, 심한 학대를 가한 남편 특성은 깊이 살펴 볼 수 없었다.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에 대한 선행연구들(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1999; 김현수 등, 2000; 신성자, 1999; Follingstad & Dehart, 2000; Lown & Vega, 2001)의 경우, 남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남편들을 양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일반적이어서, 학대하는 남편의 개인 내적 특성이나 성장역사,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면밀히 살필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편살해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외에 남편살해 여성의 충동성이나 공격성, 또는 분노통제 방식 등 여러 특성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남편을 살해하게 한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남편특성, 여성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이다. 여러 변인에서 이 두 집단이 차이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남편을 살해한 여성 중 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은 어떤 다른 이유로 남편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편을 살해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미래연구는 남편살해 여성과 비슷한 수준의 아내학대를 당하고도 살해까지 이르지 않고 쉼터에 입소하거나 학대에서 벗어난 여성들과 함께 비교하여 살해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공미혜(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 아내구타. **가족학논집, 9,** 49-79.

권진숙(1995). 배우자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신(2002). 아내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65-87.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13-239.

김경애(2001). 살인을 부르는 가정폭력: 구타당하는 여성과 친족살해-여성단체가 구명 운동을 벌인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4,** 176-216.

김경희(2002). **종이아이.** 서울: 동문사.

김광일(1988). **아내구타의 실상과 허상.** 김광일(편).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서울 : 탐구당.

김애경(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 연구, 16(3),** 31-50.

김영희, 박광배, 이재희(2004). 여성 살인범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 치료적사법이념의 현실적 구현 방안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김은주(2004). 아내에 의한 남편살인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의한 남편살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7,** 35~61

김익기, 심영희(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김인숙, 김혜선, 신은주(1997).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학대받는 여성의 쉼터 연구. 파주 : 나남.

김정란(2002). 아내학대에 대한 부부체계적 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옥(1991). **아내구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대부설 한국여성문제 연구소.

김정희(1992). 중년 여성의 적응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정서적 경험의 관계: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상담과 심리치료, 4(1),** 54-63.

김지영(1995). 학대받는 아내를 위한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수, 조선미, 윤응장, 이영미, 송은하(2000). 한국 가정폭력 남성 가해자의 유형화에 관한 예비적 연구.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35-30.

대검찰청(2002). 범죄분석. http://www.sppo.go.kr/act/act15_2003.htm

박미은(1997).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순진(2002). 가족살해에 있어서 가해자-피해자의 갈등구조 분석. **형사정책연구, 13(4).**

박재신(1992). **가정내 폭력과 일상생활.** 서울: 등불.

변화순, 원영애, 최은영(1993). **가정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신성자(1999). 부부간의 열등감, 성역할태도와 스트레스가 아내강간 경험 및 피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117-151.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혜영(1999). 어린이집에서의 문제행동 이해와 상담.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 제 2회 영유아교사연수.

심영희(1996).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발생 우지기제와 사회적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부년 기념 심포지움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심재근(1984). 가정내의 폭력과 공격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11(1),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1990). **결혼과 가족관계,** 서울 : 숙명여대 출판부.

전병제(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정계숙, 이은하(2003).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로 인한 반항적/적대적 행동문제 유아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영유아보육연구, 12,** 51-78.

정현미(2001).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정당화 및 면책사유의 검토. **법학논집, 6,** 43-58.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조수환(2003). **건전한 삶을 위한 정신위생.** 서울: 동문사.

한국여성의 전화(1992).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 개원 9주년 기념 아내구타 공개토론회 자료집.

한인섭(1996).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서울대학법학논집,** 261-312.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2, 277-320.

Gelles, R. J.(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이동원, 김지선 역).** 서울: 길안사.

Adler, J.(2002). I loved Joe, but I had to shoot him: Homicide by women in turn-of-the century Chicago.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92*, 867-897.

Bowker, L. H.(1993). A battered woman's problems are social, not psychological.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i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Browne, A.(1987). *When battered women kill*. New York: Macmillan Press.

Campbell, J. C.(1995). Prediction of homicide of and by battered women. In J. C. Campbell (Ed.), *Assessing dangerousness: Violence by sexual offenders, batters and child abusers* (pp.96-11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Carlson, B. E.(1984). Causes and maintenance of domestic violence: An ecological Analysis. *Social Service Review, 58*, 569-587.

Chimbos, P. D.(1978). Marital violence: *A study of interspouse homicide*. San francisco: R & E Research Associates.

Cleveland Refuge and Aid for Women and Children(1984). *Private violence*: Public Shame, Middleborough, (RAWC).

Cochran, J. K., & Bromley, M. L.(2003). The myth of the police sub-cultur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6(1)*, 88-117.

Dekovic, J. M., & Janssens, A. 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Dutton. M. A.(1992). *Empowering and healing the bettered women*. NY:Springer.

England, B.(1993). A history of abuse is a major risk factor for abusing the next generation. In R. J. Gelles, & K.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pp.197-208)*. Newbury Park, CA: Sage.

Finn, J.(1985). The stresses and coping behavior of battered Women: Social case work.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June, 341-348.

Follingstad, D. R., & Dehart, D. D.(2000). Defining psychological abuse of husbands toward wives: Contexts, behaviors, and typologies.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15(9)*, 891-920.

Gagne, P.(1998). *Battered women's justice*. New York: Twayne.

Gelles, R. J.(1993a). Through a sociological lens : Social structure and family violence. In R. J. Gelles, & K.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 Sage.

Gelles, R. J.(1993b). Alcohol and other drugs are associated with violence ? They are not its cause. In R. J. Gelles, & K.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pp.182-196). Newbury Park, CA: Sage.

Gelles, R. J., & Harrop, J. W.(1989). Violence, batter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400-420.

Haj-Yahia, M. M.(2000). Implications of wife abuse and battering for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as revealed by the second palestinian national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21(4)*, 435-463.

Hoffman, M. A.(1984). Psychological abuse of women by spouse and live-in lovers. *Women and Therapy, 3*, 37-47.

Hotaling, G. T., Sugarman, D. B.(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Hudson, W. W.(1997). *The WALME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WALMER Publishing Company.

Johnson, M. P.(1995).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 Two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83-294.

Jurik, N. C., & Winn, R.(1990). Gender and homicide: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who kill. *Violence and Victims, 5*, 227-242.

Kantor, K. G., & Straus, M. A.(1987). The drunken bum theory of wife beating. *Social Problems, 34*, 213-230.

Lackey, C., & Williams, J. R.(1995). Social bonding and the cessation of partner violence across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95-305.

Launius, M.H., Lindquist, C.U.(1998). Learned helplessness,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passivity in battered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 307-318.

Leonard, E. A. D.(2002). *Convicted survivors: The imprisonment of battered women who kill.*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Lown, E. A., & Vega, W. A.(2001). Prevalence and predictions of physical partner abuse among Mexican American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3),* 441-445.

Mann, C. R.(1992). Female murderers and their motives: A tale of two cities. In S. L. Johann & F. Osanka (Eds.), *Representing battered women who kill.*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Martin, D.(1981). Battered wives. New York: Pocket Books.

Pan, H. S., Neidig, P. H., & O'Learly, K. D.(1994). Predicting mild and severe husband-to-wife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975-981.

Pence, E., & Paymer, E.(1993).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the Duluth model.* NY: Springer.

Rait, F. E., & Zeedyk, S.(2000). *The implicit relation of psychology and law: women and syndrome evidence.* London: Routledge.

Robertson, J. B.(1998). Battered women syndrome. *Otago Law Review,* 277-300.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s, Campbell, & Clayer(1982).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EMBU).* Copenhagen, Denmark.: Munksgaard International Publishers Ltd.

Sabatelli, R. M., & Bartle- Haring, S.(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1),* 159-170.

Sampselle, C.M.(1992). *Violence against women: nursing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issues.* New York : Hemisphere.

Schneider, E. M.(2000). Therapeutic jurisprudence & the emergence of problem-solving courts.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6(2),* 27-30.

Sigall, H., & Gould, R.(1977).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evaluator demandingness on effort expenditur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5,* 131-153.

Silver, R. L., & Wartman(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Garber, & M. E. P. Seligman(Eds.), *Human helplessness(pp.293-317).* NY: Plenum.

Star, B., Clark, C. G., Goetz, K. M., & O'Malia, L.(1979). Psychosocial aspects of wife battering. *Social Casework, 60,* 479-487.

Steinmetz, S. K.(1977). *The cycle of violence.* A Division of Holt, Reinhalt and Winston CBS Inc.

Stith, S. M., Rosen, K. H., Middleton, K. A., Busch, A. L., Kundeberg, K., & Carlton, R. P.(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40-654.

Straus, M. A.(1980). Stress and child abuse. In R. Helfer, & C. H. Kempe (Eds.), *The battered child in Chicago(pp.86-103).* The University of Chicago.

Straus, M. A., & Sweet, S.(1992).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123-141.

Street, A. E., & Arias, I.(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 65-78.

Tjaden, P., & Thoennes, N.(2000).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final repor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search Brief.

Tolman(1989).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y(PMWI).* New York: Springer.

(2005년 10월 26일 접수, 2006년 8월 21일 채택)